

수망리 태양광발전사업 ‘탄력’ 상권 되살려 머물고 싶은 원도심으로

도의회 한도위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원안 의결
심의 앞두고 질의서 별채·폐패널 처리방안 ‘질타’

태양광발전시설 중 도내 최대 규모인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인허가 막바지 질차인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 결정을 내렸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7352㎡ 부지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설비 용량은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준공이 완료될 경우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은 총 650MW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환경훼손 논란에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횟수 증가 등 과잉전력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심의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는 사업 시행 시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발전시설의 폐기물인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방안 문제도 거론됐다

현기중 의원 (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개인의 경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하나를 벌채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데, 개인 사업을 위해서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벌채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태양광 폐패널 처리방안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20년이 지나면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게 된다. 폐패널 관련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나라에 폐패널 재활용 업체가 2군

데 있다고 하는데, 제주같은 경우 옥지 (재활용 업체로) 왔다갔다하게 되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전체 큰 덩어리로 하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부분부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폐패널 문제에 대해선 “20년이 지나면 효율이 10~15% 감소할 뿐. 중견기업 등에서 폐패널을 수거해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심의 안건에 오른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강다혜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제411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

서귀포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동지역 놀이터·읍면 저소득층 주택 열차단 시공

서귀포시가 어린이와 노인, 저소득층 가구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3년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돼 예산 2억원을 확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후친화형 폭염쉼터 조성사업과 취약가구·시설 차열조성사업이다.

시는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고령층이 이용하는 서홍동 소재 아이뜨락 공원에 지붕형 쿨링쉼터를 비롯해 쿨링포그, 그늘막 등을 설치한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이 심한 기존 시설을 안전한 기후 탄력형 야외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옥상 및 지붕, 건물 외벽에 쿨루프를 시공해 실내온도를 저감하고 냉

방 효율을 높이는 차열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 시공을 통해 실내온도를 5℃가량 낮춘다는 구상이다.

시는 공모에 앞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 시스템 (VESTAP) 취약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후노출 부문과 민간도 부문을 합한 취약성 통합지수가 높은 대정읍(0.57)과 성산읍(0.51) 지역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동지역에 건취 읍면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폭염에 의한 열질환에 취약하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960~70년대 제주시 원도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멋과 낭만의 신문화가 들어오고, 유행하고, 퍼져가는 발상지”였다. 온갖 물자와 사람이 몰려들던 원도심의 명성을 되살릴 수는 없을까. 제주시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서로 만나고 즐기면서 머물고 싶은 원도심을 만드는 일에 나서고 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칠성로 508개, 제주중앙지하상가 264개, 중앙로상점가 구역 272개 등 원도심 지역에 분포한 점포는 총 1044개다. 이 중 88개가 빈 점포다. 도심의 대형 상권이지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최근 3

개년 동안 이곳을 찾는 고객 수는 32.1% 감소했고 매출액도 떨어졌다. 이는 지역민에 의존하는 상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시는 최근 전체 인구가 늘어난 반면 일도1동, 삼도2동 등 원도심은 줄고 있다. 젊은 세대의 유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노령화 등은 상권의 쇠퇴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다.

지난 8월 취임사에서 “청년의 미래가 시작되는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0월 원도심 활력화를 내용으로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강 시장은 “칠성로로 대표되는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거리문화 행사 등 청소년층과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한 젊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며 젊은 공직자들로 구성된 ‘이루미 시책 개발팀’을 주축으로 창의적인 시책 기획과 관련 부서의

국비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지난 달 30일 취임 100일 회견문에도 민간과 협업해 ‘원도심의 문화적 가



강병삼 시장이 지난 10월 말 제주시 젊은 공직자들로 구성된 ‘이루미 시책 개발팀’과 원도심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제주시 제공

제주시, 칠성로·지하상가·시장 등 벨트화 활력 모색 유희공간 활용 문화콘텐츠 등 방문객 체류 연장 유도 강 시장 “청소년·청년 모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

치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제주시 원도심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공항에서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가능성도 열렸다. 특히 1983년 중앙지하상가 조성 과정에 철거된 횡단보도가 상인들의 협력으로 38년 만인 지난해 말 개통되는 등 보행권 확보와 상권 이용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와 칠성로, 중앙로, 동문시장 등의 상점가를 하나로 묶는 상권 벨트화로 중심 상권 기능 회복을 꿈꾸고 있다. 지역 기반 상권 육성, 로컬비즈니스 기반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 마케팅, 상권 관리 등 5개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장인의

거리 등 로컬 상권 키우기, 고객 서비스 공간 등 체류 인프라 구축, 골목여행 동선 개발, 버스킹 등 실내외 공연, 감성소품 플리마켓, K-뷰티 체험 거리, 라이브 커머스 운영 등을 구상 중이다.

앞서 제주시가 실시한 ‘제주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계획’ 연구 용역에서는 “시장 내 유희 시설에 문화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된 콘텐츠와 희소성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래밍과 축제·이벤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차량보다는 도보 중심의 계획으로 공연·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 특화 품목이나 문화적 요소를 접목한다면 관광객 체류 시간 연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시 약천사 자광원에 녹색나눔숲 조성

서귀포시는 약천사 자광원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한 ‘2023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분야 공모에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기금 2억원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1억9200만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사랑원 실외 나눔숲을 조성했다. 기존에 노후 정자와 창고 등을 철거하고 교목 왕벚나무 외 12종·102주, 관목 다정금나무 외 6

종·2084주, 초화류 4430본을 식재했다.

시는 내년도 사업과 관련, 자광원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시설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진작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생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2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향)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한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야마노스
미니몬, 국내산 행자묘목 판매 (신규인 20~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주문생산
탐빛1호, 선경,
설봉이,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시 제주시 서성로 991번길1(수산리735)